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5년 제 25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공부하는 학생선수'라는 말에 갇힌 학교 체육과 제3의 길

스포티즌 심찬구 대표

02

“초대는 했지만 불청객?”...세계 스포츠를 맞이하는 트럼프 정부의 불쾌한 태도

스포츠 경향 김세훈 기자

03

현대모비스, 양궁 대중화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

글로벌이코노믹 김태우 기자

04

'홀로 시험 보고 자격 획득' 스포츠윤리센터, 규정 위반 심판에 징계 요구

마이데일리 심혜진 기자

05

'스포츠토토' 한국스포츠레저, 낙하산 인사에 검직 논란까지

아시아투데이 최인규 기자

'공부하는 학생선수'라는 말에 갇힌 학교 체육과 제3의 길

스포티즌 심찬구 대표

2025.07.13. 23:31

그래픽=이철원(조선일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과 체육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그 중심에 '공부하는 학생 선수'라는 말이 있다. 운동선수도 공부해야 한다는 말은 상식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어떻게 스포츠를 통해 미래 세대를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두 개의 다른 접근은 주류 체육계의 ‘엘리트 선수 육성 중심론’과 개혁 세력의 ‘전인적 성장론’ 사이의 충돌이다. 한쪽은 직업 선수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훈련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운동선수도 ‘학생’인 이상 최소한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에 착수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등 체육계 내부의 부조리가 표면화된 사건들을 계기로 체육계 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올라온 것이다. 이를 계기로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훈련 문화 개선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그 중심에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 없이는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최저 학력제’ 도입이 있었다. 학생 선수도 기본 학력은 갖춰야 한다는 슬로건은 사회적 지지를 얻었다. 학생 선수 대다수가 직업 선수가 되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필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학사 운영과 운동부의 훈련, 시합을 위한 현실이 충돌하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운동선수 맞춤형 커리큘럼의 부재, 수업·출석 의무 강화로 인한 물리적 훈련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학교 운동부 해체 같은 반작용이 나타났다.

- 아래에 계속 -

체육계는 혁신안을 출석과 시험 성적 위주의 “규제 일변도 탁상행정”이라 비판하며 폐지를 외친다. 개혁 진영은 체육계의 혁신안 폐기 주장을 ‘소수 스타 플레이어의 성공’에 기대어 ‘다수의 희생과 낙오’를 외면하는 “구체제 국가주의에 갇힌 과거 회귀적 반발”이라고 비판한다. 교육의 이름으로 체육을 계몽하려는 교실과 엘리트 체육의 생태계를 방어하려는 운동장 사이에서 정치적으로까지 비춰지는 과거형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를 통해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방법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질문은 스포츠의 본질적 교육 가치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인구 감소가 국가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AI가 인간의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지금, 미래 교육은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하는가? 그리고 그 핵심 수단으로서 스포츠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스포츠는 신체 활동을 넘어, 정서·사회·인지 발달을 통합적으로 가능케 하는 일종의 교육 플랫폼이다. 목표 설정, 성공과 실패의 경험, 협력과 역할 수행, 창의적 문제 해결, 자기 성찰에 이르는 일련의 구조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 주도성, 회복 탄력성, 메타인지, 사회적 책임감 같은 미래형 역량을 자연스럽게 체득한다. 이는 단지 학생 선수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경험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으로 정서 지능, 회복 탄력성, 소통 능력, 적응력 등을 꼽았다. 영국 윈체스터대학 빌 루커스 교수는 “아이들이 교과 지식을 넘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협업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비인지 능력(non-cognitive capabilities)’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능력들은 전통적 수업과 시험이 아닌 몸으로 부딪치고, 실패하고, 협력하는 활동 기반의 체험, 스포츠 속에서만 가능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포츠를 교육 과정의 핵심으로 삼았다. 미국 NCAA(미국대학 스포츠협회)는 경기 출전과 학점을 연동하지만, 그 전제는 미국 전역의 일반 학생들이 스포츠에 폭넓게 참여하는 제도와 문화에 있다. 일본은 ‘부카츠(동아리)’를 기반으로 지역과 학교가 연계된 ‘문무융합’ 시스템을 구축했고, 핀란드는 ‘움직이는 학교’ 정책을 통해 체육을 ‘신체 문해력(Physical Literacy)’ 중심 교과로 운영한다. 이들은 모두 ‘운동하는 일반 학생’을 전제로 한다.

개혁 세력의 대안적 혁신안 중 하나는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였다.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으로, ‘운동하는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학교교육 안에서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입시 중심 교육에 가려졌던 체육의 복권이자 교육 혁신의 한 축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시 위주의 학사에 우선순위가 밀린다. 체육계는 학교스포츠클럽의 비전문성을 평가절하하며 엘리트 학교 운동부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립의 승패가 아닌 진화적 융합이다. ‘공부하는 학생 선수’와 ‘운동하는 일반 학생’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체육의 교육적 복권은 단지 엘리트 체육의 개혁이 아니라, 한국 교육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 프레임에 갇힌 소모적 힘싸움이 아니라, 교육과 체육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세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체육을 정규 교육의 핵심으로 복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인지 역량 중심의 프로그램과 교사 양성, 교육 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개별화된 평가와 학습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 선수에게는 제도적 설계를 통해 훈련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시간표와 재도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지자체가 각개 약진하는 현재 구조로는 통합적 정책 실행이 어렵다. 일본의 스포츠청, 영국의 스포츠잉글랜드처럼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에 앞서 2025년 대한민국의 사회와 국민에게 ‘스포츠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과 가치 체계, 정책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근대 시민 교육의 출발점에서 교실과 운동장은 본래 하나였다.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할 때다.

- 마침 -

“초대는 했지만 불청객?”…세계 스포츠를 맞이하는 트럼프 정부의 불쾌한 태도

스포츠 경향 김세훈 기자(shkim@kyunghyang.com)

2025.07.13 08:43

사진=지난 5월 6일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2026 FIFA 월드컵 조직위원회 헌장에 서명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AP)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 개최를 앞둔 미국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12일 칼럼을 통해 “스포츠 외교의 전통적 명분은 ‘개방’과 ‘환대’에 있지만, 현재 미국은 국경을 닫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세계주의 기조 아래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들은 ‘불청객’을 맞이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마 존 가디언 칼럼니스트는 “세계 스포츠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무대에 올라서기를 수십 년간 갈망해 왔지만, 정작 그 무대 위엔 외부 세계를 거부하는 주최자가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클럽월드컵 결승전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FIFA가 트럼프타워에 미국 지사를 열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가디언은 “외형적으로만 보면 미국과 세계 축구계는 가까워지는 듯하지만, 내면은 불협화음으로 가득하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2026 월드컵을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특별한 대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웃 국가인 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를 향해 ‘영토 편입’까지 언급하는 등 상식 밖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긴장이 클수록 대회가 더 흥미로워진다”고 트럼프 발언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쿠바 여자 배구 대표팀은 푸에르토리코 입국이 거부됐고, 브라질 탁구 세계 챔피언은 미국 대회 참가 비자를 받지 못했다. 세네갈 여자 농구 대표팀은 미국에서의 훈련 캠프를 취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가디언은 “국제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상호 교류와 문화적 통합을 전제로 한다”며 “특히 올림픽과 월드컵처럼 ‘지구촌 축제’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이벤트에서 이러한 폐쇄성은 그 자체로 국제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스포츠 외교는 ‘핑퐁 외교’처럼 정치보다 앞서 세계를 연결해왔지만, 지금 미국에는 그런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의 미국은 ‘큰 공(Big, Beautiful Balls)’만 있을 뿐, 외교는 없다”고 비판했다.

- 아래에 계속 -



02

세계 스포츠는 오랜 시간 미국이라는 시장을 공략해왔다. 크리켓은 2004년부터 미국 진출을 위해 ICC가 ‘프로젝트 USA’를 운영했고, F1은 3개 미국 내 그랑프리 포함 달력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를 동원한 영화까지 총력전을 펼쳤다. 그 결과, 최근 발표된 글로벌 F1 팬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팬 수는 2024년 대비 10% 증가한 5200만 명에 이르렀고, 이들은 세계 어느 팬층보다 콘텐츠 몰입도가 높았다. 가디언은 “이러한 투자와 성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배타적 태도 앞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을 정복하라”는 스포츠 산업 숙원은, 정작 미국이 세계를 향한 문을 걸어잠그는 순간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생일을 맞아 군사 퍼레이드를 열었고, LA에 주 방위군을 파견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단지 정치 쇼를 넘어, 향후 열릴 올림픽이나 월드컵까지 정치적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낳고 있다. 가디언은 “글로벌 스포츠는 미국이라는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지금 그들은 ‘환영받지 못한 손님’이 되어가고 있다”며 “초대는 받았지만, 문 앞에서 거부당하는 이 기묘한 상황은 세계 스포츠 외교에 경고를 던지고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미국이라는 무대에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그 무대를 통제하려는 자가 손님을 원치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고 트럼프 정부를 재차 비판했다.

- 마침 -

현대모비스, 양궁 대중화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

글로벌이코노믹 김태우 기자(ghost427@g-enews.com)

2025.07.03 15:20

사진='2025 현대모비스와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현대 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양궁의 저변확대와 양궁이 청소년들의 생활 체육으로 자리잡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는 현재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시범 운영중인 양궁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도록 더 많은 학교들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은 방과 후 수업 격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가 운영하는 학생들의 체육 취미활동을 말한다.

현대모비스는 12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남서울대학교에서 '2025 현대모비스와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 2022년부터 대한양궁협회와 현대모비스가 공동으로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양궁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도입한 학교와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이번 대회에는 전국 21개 중학교에서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지난 4년간 이 대회에 참가한 학교와 학생 수가 꾸준히 늘며, 생활 체육으로의 양궁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대회에는 현대모비스 여자양궁단 소속 선수들도 재능기부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선수들은 학생들에게 활 쏘는 법을 시범으로 선보이고, 학생들과 이벤트 시합을 펼치기도 했다.

40여년간 여자 양궁단을 운영해 온 현대모비스는 양궁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육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17년부터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니어 양궁교실' 프로그램을 영하며, 양궁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보급하는 기반을 닦았다.

- 아래에 계속 -



03

현대모비스 양궁단 출신 은퇴 선수 등이 강사로 참여하는 '주니어 양궁교실'은 올해에만 2000명이 넘는 전국 청소년들에게 양궁 입문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현대모비스는 올해부터 학교스포츠클럽 정식 편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양궁협회와 함께 학교 보급형 양궁 규칙을 개정하고, 전문적인 커리큘럼과 교재도 제공한다.

클럽을 인솔하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사들의 연수도 지원하고, 각 시도별로 개최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양궁 대회도 후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체육회로부터 스포츠 가치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1986년 여자 실업 양궁단 창단 이후 40년 넘게 한국 양궁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김경욱(애틀랜타), 주현정(베이징), 강채영(도쿄)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하며 국제 경기에서 다수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한국 양궁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 마침 -



스포츠윤리센터
KOREA SPORT ETHICS CENTER

04

'홀로 시험 보고 자격 획득' 스포츠윤리센터, 규정 위반 심판에 징계 요구

마이데일리 심혜진 기자(cherub0327@mydaily.co.kr)

2025-07-14 10:03

사진=스포츠 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4일 심판 강사 자격취득 코스 일정 중 이론 및 영상테스트 시험을 하루 앞당겨 혼자서만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심판 강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전 대한 OO 협회 심판위원장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연수원에서 진행된 23년 신규 심판 강사 세미나 및 급수에 따른 경기 규칙 이론 시험 과정 둘째 날에 진행된 이론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24년 심판 강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피신고인은 세미나 첫째 날에 주제 발표는 하였으나 경기 규칙 이론 시험이 예정된 둘째 날에는 다른 행사에 참석해야 하기에 첫째 날 전임 강사 감독하에 혼자 이론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해당 협회 심판 강사 자격취득 코스 일정 및 피신고인의 심판 강사 2급 자격취득 사실 여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신고인이 일자를 앞당겨 혼자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피신고인이 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시험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로 해당 자격을 취득한 것이며, 전임 강사의 감독하에 혼자 시험을 본 행위가 설령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아래에 계속 -



이에 피신고인에 대한 행위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및 제1호, 제31조 제2항 관련(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의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각종 규정 위반행위 등 포함)에 해당하여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신고인이 체육단체 내 지위를 이용하여 시험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센터는 체육단체 임직원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고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예방을 통해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마침 -

'스포츠토토' 한국스포츠레저, 낙하산 인사에 검직 논란까지

아시아투데이 최인규 기자(ig0710@naver.com)

2025-07-13 18:28

사진=국민체육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공단)이 스포츠토토 공영화를 위해 만든 한국스포츠레저(주)(레저)에서 임원들의 낙하산 인사에 이어 검직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임원들이 공단과 레저에서 동시에 직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 특성상 비상식적인 인사일 뿐만 아니라 준공무원 신분으로서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시아투데이는 7월 11일자 <낙하산 꽃고, 고용승계 불이행 논란... 스포츠토토 공영화 '시끌'> 기사에서 공단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는 공단이 박용철 전무이사를 레저에 대표이사로 앉히고, 경영혁신본부장 등도 자회사 요직에 앉혔다는 내용이다. 런데 취재 결과 박 대표이사는 공단 전무이사직을 유지한 채로 자회사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A씨도 공단 감사실장직을 그만두지 않고 자회사 감사 자리를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모두 검직으로 소속이 공단, 레저 두 개다. 공단은 이들 이외에 경영·IT(시스템) 본부장직엔 파견 형태로 자사 직원을 보냈다.

문제는 공단의 검직 인사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목적의 검직은 제한된다. 공단 정관상에서도 비영리 목적으로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검직이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검직 문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진했다"며 "외부 인사가 새로 선임되면 곧바로 검직이 해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단이 자사 고위직 인사 적체를 위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 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도 굳이 자사 직원들을 검직과 파견 형태로 보냈기 때문이다. 지어 공단은 지난 4월 공개채용 때 1~2급 중 상품운영 본부장을 제외하곤 모집하지도 않았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